

배경지식

포로는 악마의 마음을 소리의 형태로 알아낼 수 있는데 다비는 자신의 마음이랄게 없음. 케트트 음악제 때 포로가 애들 소리를 듣다가 다비한테서 기시감 들었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그리고 마케스트라 연주 듣는데 다비의 연주는 분명히 완벽한데 음악에 자신만의 해석이라든가 이해 같은 게 전혀 없다는 걸 포착하고 지적함. “넌 네 소리랄 게 없어. 그냥 남의 걸 베낀 것에 불과해.”

문제아반 음악제 끝나고 포로가 육지중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같이 가는 중에 갑자기 우에토토랑 키리오가 사라짐. 원가 싫어서 주위를 둘러보니 뒤에서 다비가 다가오고 있음. 다비가 “당신에게 꼭 들려드려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하고는 자기 구슬 머리장식 꺼내서 체르실로 트럼펫으로 바꿈.

[다비식 리리스 카펫]

다비의 연주>포로의 감상

1. 카르에고의 리리스 카펫 > 남성들의 구애 파트. 농염하고 야릇한 어른의 사랑. 포로는 그 음을 들으면서 피식 웃음. 정작 본인의 사랑은 저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서, 솔직하지 못한 모습이 우스움. 다비, 너는 이 어른의 사랑도 카르에고 군의 비밀도 이해하지 못하겠지.
2. 이루마의 리리스 카펫 > 리리스의 마음이 드러나는 파트. 남자들의 구애를 듣는 리리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원작 대사 오마주) 기존의 리리스 카펫과 달리 리리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다정한 음악. 네가 되고 싶은 모습이구나. 하지만 글썽, 네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3. 문제아 반의 리리스 카펫 > 불안함, 그러나 믿음. 사랑이 찾아오지 않을지도 몰라, 푸르손이 오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반드시. 이루마를 필두로 하여 옆의 악마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문제아 반. 너도 언젠가 네게 사랑이 찾아올 거라고 믿고 있지?
4. 푸르손의 리리스 카펫 > 마침내 선택을 한 푸르손의 리리스 카펫. 약간의 불안감, 하지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서 신나. 좋아하는 악마와, 좋아하는 것을 하며 활짝 웃는 그 모습은 나를 생각나게 해. 너도 그러고 있구나. 난... (생각에 잠기려는 순간 우렁찬 트럼펫 소리)
5. 포로의 축포 > 포로의 생각이 멈춤. 아, 너는 이 놀이에 나도 끼워주고 있구나.

“이게 제가 모두와 함께 찾은 제 소리입니다!”

다비가 이 말을 할 때 다비의 소리가 형상화되어 카르에고와 문제아반 등등 다비의 소중한 사람들이 보이는 듯한 환상이 보임. 음악에선 표현되지 않았던 시치로나 오페라, 설리번, 선생님들도 보이는 듯함. 포로가 놀라서 눈 커다랗게 뜨면 포로의 환영이 포로를 지나가며 활짝 웃음.

“그래, 정말 멋진 너만의 소리로구나!”